



2면

"방역 모범국가 됐다
치료제·백신 개발도 앞장"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음 3월 18일) 제251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방역 사각지대 '감성주점' 행정명령

전북도, 영업제한 권고... 방역 미준수 시 벌금 등 클럽 등 집단감염 우려 높아 방역 관리 강화 여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일반음식점 중 일명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명 '감성주점'에 대해 전북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시설·업종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지난 8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업종은 오는 19일까지 영업중단 권고 조치를 받게 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

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는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이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돼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일반음식

점의 일종으로 낮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심야시간대 식사는 판매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출입하며 술 마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힘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이어서 그동안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 조치 행정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행정명령 적용대상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설·업종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에 이어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도 포함

됐다.

전북도와 시군은 그동안 행정명령 적용대상 1만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만8,641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중 4,706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고 4월 7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는 6,722개소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5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도의 코로나19 발생(17명)이 타도에 비해 낮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선관위, 총선 투·개표 생중계

한국선거방송 통해 시청자 접근성도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선거정보를 신속 제공하기 위해 선관위가 24시간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방송에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참여해 투·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 절차, 투표함 보관·이송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전투표소 4곳과 전국 투·개표소 각 7곳을 이원 연결해 현장 모습을 전달하고 국회방송 등 시 송출로 시청자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생중계는 올레TV(채널 273번), 티브로드(채널 205번)에서 방송된다.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윤세천 전북농산물 통합마케팅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서영숙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참석자들이 성금 기탁식을 갖고 있다.

전북도, 내년 국비확보 방안 모색

송하진 지사 주재 전략회의 예산편성단계 대응 전략 수립

전북도가 코로나19 비상 사태에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중앙부처 방문활동이 어려워져 실·국장 중심으로 유선 접촉, 이메일 정보제공, 중앙부처 출향 인사 활용 등 축적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물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전북도는 9일 도청 집무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별 부처 반응에 대한 토론과 전략을 논의했다.

4.15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추이를 보면서 지휘부 부처방문활동을 비롯해 부처 항우간담회, 정치권과 시·군 협조체제 구축 등 선제

적으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각 실·국별로 부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중심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등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구상했다.

또, 앞으로 3년 연속 7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각 단계별 상황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송 지사를 필두로 행정·정무 부지사와 각 실·국장이 사업별로 부처 미온적, 부정적 사업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총선 이후에는 새롭게 선출될 정치권 및 시·군과의 공조 채널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코로나19로 내년 세수여건이 어렵고,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많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예년에 비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시군·정치권이 혼연일체 되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 주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감염병 탓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도교육청, 매점·자동판매기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난(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현재 5%에서 1%로 감액한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학교(기관)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수익 허가(대부)를 받은 자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개학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업(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후 시설폐쇄 명령 등이 해제되어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접수 후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 산정 결과를 통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